

고양이

글 현덕 · 그림 이형진

아름다운 책, 따뜻한 책,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
길벗어린이가 만들어 갑니다.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글쓴이 현덕

1909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한국전쟁 때 월북했습니다. 193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고무신'이 가작으로 당선되고, 193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남쟁이'가 당선되면서 활발하게 소설과 동화를 발표했습니다. 일제 시대에 발표했던 작품들을 묶어서 1946년에 동화집 '포도와 구슬', 소년소설집 '잠을 나간 소년'을, 1947년에는 동화집 '포키 삼형제'와 소설집 '남쟁이'를 펴냈습니다. 현덕 선생님의 동화는 교훈적인 내용을 탈피해 일상 속 아이들의 심리를 잘 그려내, 현대 어린이문학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고양이'는 1938년에 출간된 '조선아동문학집'에 실려 있는 동화로, '노매'를 주인공으로 한 40여 편에 이르는 동화 중 하나입니다.

그린이 이형진

1964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에서 산업미술을 공부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어낸 상상력 돋보이는 그림으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두운 계단에서 도깨비가', '대굴대굴 공을 밀어 바', '뽕내는 김을으로', '재자', '자존심', '장승 별타령', '꼬물꼬물 일과 놀이사전' 등 여러 어린이책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쓰고 그린 그림책으로는 '곰지', '종애와 다래', '하나가 길을 잃었어요', '배달 차마' 등이 있으며, '코 앞의 과학' 시리즈와 '안녕?' 시리즈, '자기 톰 그림책' 시리즈 등을 만들었습니다.

고양이

글·현덕

그림·이형진

첫판 펴낸날·2000년 9월 25일 | 첫판 11쇄 펴낸날·2007년 10월 20일
펴낸이·이호균 | 펴낸곳·길벗어린이(주)
등록번호·제 10-1227호 | 등록일자·1995년 11월 6일
주소·413-756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11-2
전화·031-955-3251 | 팩스·031-955-3271
홈페이지·www.gilbutkid.co.kr

그림 © 이형진 2000

이 책의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86621-73-0

ISBN 978-89-86621-94-5(세트)

고양이

글 현덕 · 그림 이형진



길벗어린이

살살 앵두나무 밑으로 노마는 갑니다. 노마 담에 툭툭이가
노마처럼 살살 앵두나무 밑으로 갑니다. 툭툭이 담에 영이가
살살 툭툭이처럼 갑니다.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그리고 노마는 고양이처럼 등을 꼬부리고 살살 발소리 없이
갑니다. 아까 여기 앵두나무 밑으로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살살 가던 것입니다. 김정 도둑 고양이입니다.





—아웅아웅, 아웅아웅.

—아웅아웅, 아웅아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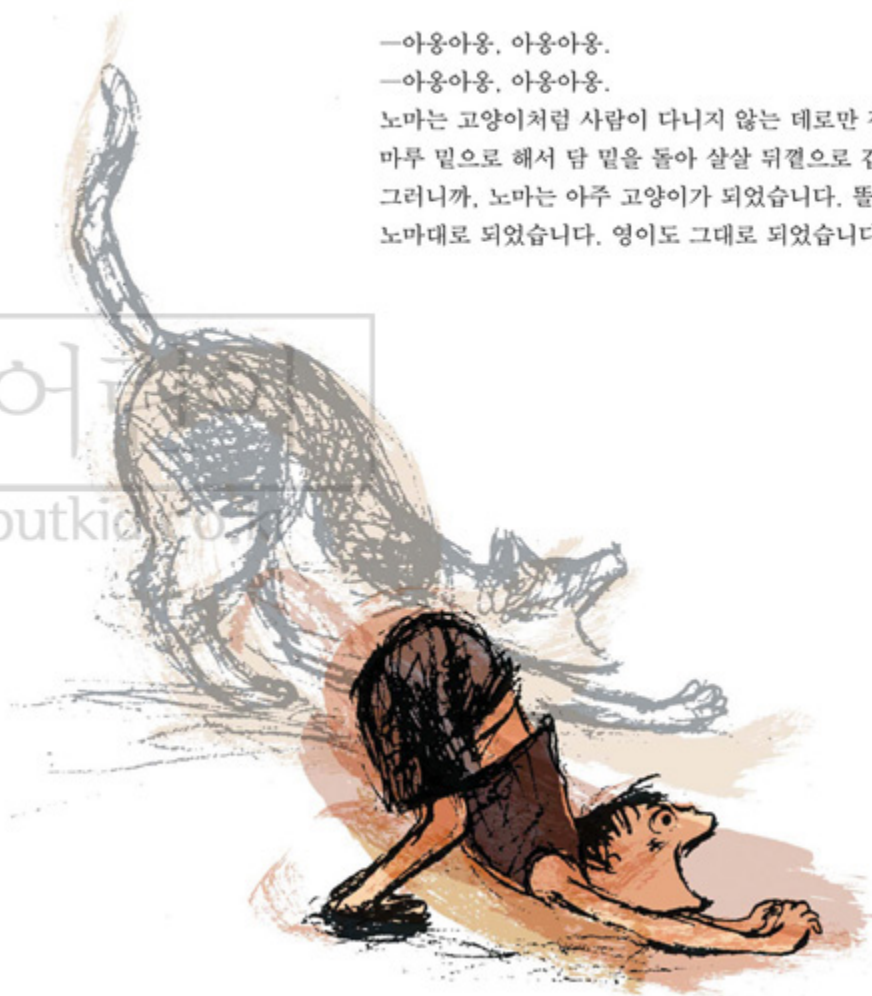
노마는 고양이 모양을 하고 고양이 목소리를 하고,
그리고 고양이 가던 테를 갑니다. 그러니까, 어쩐지
노마는 고양이처럼 되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똥똥이도 그래졌습니다. 영이도 그래졌습니다.



—아웅아웅, 아웅아웅.

—아웅아웅, 아웅아웅.

노마는 고양이처럼 사람이 다니지 않는 데로만 갑니다.
마루 밑으로 해서 담 밑을 돌아 살살 뒤꼍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노마는 아주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툭툭이도
노마대로 되었습니다. 영이도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웅아웅, 아웅아웅.

—아웅아웅, 아웅아웅.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고양이니까, 노마는 굴뚝 뒤에 웅크리고 앉습니다.
쥐란 놀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똥똥이도 그렇습니다. 영이도 그렇습니다.



잠만 기다려도 아니 나오니까, 노마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뒷간 앞을 돌아 다시 마당으로 나갑니다.
—아웅아웅, 아웅아웅.
—아웅아웅, 아웅아웅.



이번에는 노마는 닭을 노립니다. 마당귀에서 모이를 찾고
있는 흰 닭 뒤로 살금살금 가까이 가서 후닥닥 덤비니까,
푸드득 날아 닭은 장독간계로 달아납니다. 그대로 노마는
따라잡니다. 똥똥이도 그렇습니다. 영이도 그렇습니다.





닭은 더욱 놀라 지붕 위로 피해
달아납니다. 그리고 닭은 지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꼬댁, 꼬댁,
노마, 툄툄이, 영이는 마당에서 위를
쳐다보고 아웅아웅, 고양이처럼 지붕
위까지 쫓아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노마는 큰 한입입니다.

그러나 노마는 아주 마음이 기쁩니다. 노마는 고양이니까,
아무 장난을 하든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을 염려는 조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 어머니에게 들킨대도
고양이처럼 달아나면 고만, 그걸로 인해 노마가
이전처럼 매를 맞거나 할 리는 없으니까요.





노마는 고양이처럼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반 위에
없힌 북어 한 마리를 물어 내웁니다. 고양이란 놈은 이런 걸
곧잘 물어 가니까요. 그리고 노마는 푹푹이, 영이와 조르르
둘러앉아서, 입으로 북북 뜯어 나눠 먹습니다.



그걸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다 보고 놀랍니다.

"재들이 뭘 해?"

그리고 그것이 복어인 줄 알자, 더욱 놀랍니다.

"이따 저녁 찌개 할 부개를. 노마 요 녀석 하는 장난이."

하고 마루를 구르며 쫓아 내려옵니다.



노마는 정말 고양이인 양, 후닥닥 뒷문으로 달아나며
아웅 아웅 아웅.....



길벗어린이

www.gilbutkids.com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민들레 그림책 4

고양이



길벗어린이

www.gilbutkid.co.kr

아름다운 책, 따뜻한 책,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
길벗어린이가 만들어 갑니다.



ISBN 978-89-86621-73-0
ISBN 978-89-86621-94-5 (세트)
값 7,800원